



남부 필라델피아 고등학교 사건

2009년 12월 3일, 십여 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로 쳐들어와 아시아 학생 한 명을 때리고 그 학생에게 책상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 학교 식당에서는 집단으로 아시아 학생들이 매 맞고 발로 차이고 있었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가해자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때 거리의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경호원 및 학교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학생들을 찾아 나서 26명의 아시아 학생들을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그날 13명의 아시아 학생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이 대개 온순해 보이기 때문에 괴롭힘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조지아도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지아 학교 폭력법의 구멍

- 가장 흔한 사이버 폭력의 수법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함
-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더욱 용이하게 식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선생님들에게 제공하지 못함
- 학교들이 급격히 다문화가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민자 부모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TLANTA

AAAJ는 조지아 주 및 미국 남동부에서 최초로 법률 교육, 공공정책, 주민 공동체 형성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비정당, 비영리 법률 단체입니다.

AAAJ의 비전과 목표는 사회적 움직임의 장출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시민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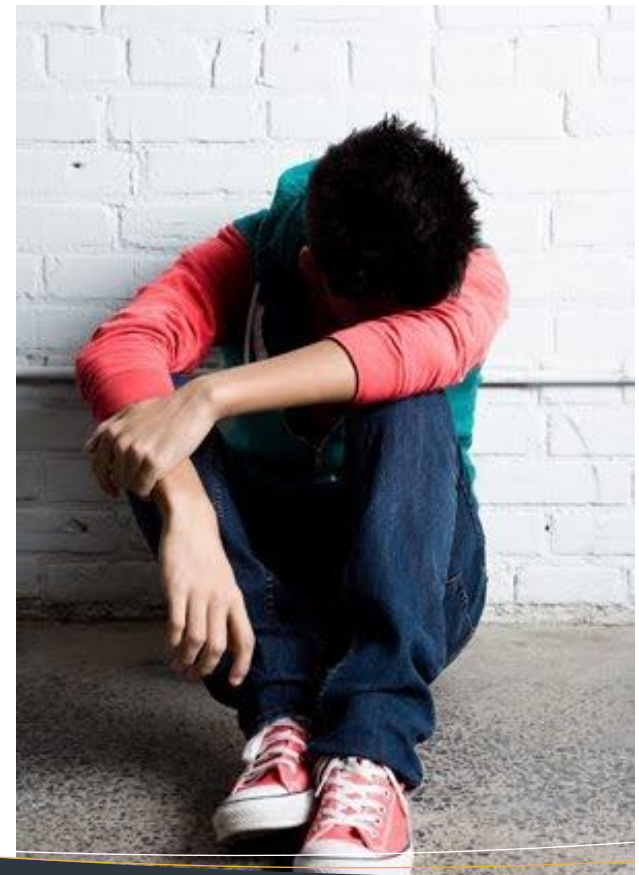
6040 Unity Dr. Ste. E,
Norcross, GA 30071

전화번호: 404.890.5655

이메일: info@advancingjustice-atlanta.org

www.facebook.com/AdvancingJusticeAtlanta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



학생 괴롭힘 (“왕따”)은 이제 그만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조지아의 급선무입니다.

학생 괴롭힘의 확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학생 괴롭힘은 공중보건 문제이며 일종의 청소년 폭력입니다. 학생 괴롭힘은 육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표적 대상, 가해자 또는 동시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학생은 570 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 예일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2 배에서 9 배가량 더 많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 ▶ **다른 어떠한 인종보다,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이 학교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 ▶ 동양계 미국인 학생들은, 가족들이 몇 세대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고 자주 치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의 무려 30%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Samuel McQuade 외,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사이버 괴롭힘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 청소년의 80% 이상이 정기적으로 핸드폰 사용함
- ▶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학생은 전체 학생의 43%에 육박함
- ▶ 학생의 70%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을 자주 목격하는 것으로 보고 됨



사이버 괴롭힘은 하루 24 시간, 주 7 일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괴롭힘과는 달리, 사이버 괴롭힘은 어디를 가든 24 시간, 주 7 일 따라다닙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아이나 청소년이 혼자 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괴롭힘은 더 쉽습니다.



인터넷에 익명으로 사진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청소년의 81%가 사이버 괴롭힘을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더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전파되며 철회하기는 거의 불가능

한번 게시되거나 보내진 괴롭히는 글, 문자 및 그림은 매우 신속히 그리고 널리 퍼질 수 있으나 지우거나 철회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전문 교육

연구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괴롭힘 예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무력함

-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괴롭힘의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개입할 수 있을 만큼의 방침 또는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이 괴롭힘을 식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선생님들은 괴롭힘을 다루는데 자신감이 생기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괴롭힘의 상황에서 개입해 줄 것이라고 더 믿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생들도 괴롭힘이 걱정되며 괴롭힘 상황에 개입해서 괴롭힘을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피해자 학생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힘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리 선생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아틀란타 교육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들은 제가 개입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게 된 한 오학년 학생의 부모